

경전 공부 방법과 기술

이름 바꾸기: 경전에서 찾을 수 있는 교리와 원리를 여러분의 삶과 관련시키기 위해 경전에 나오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본다. 마태복음 16장 15~17절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이 경전 공부 기술을 사용해 본다.

원인과 결과: 경전에서 복음 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, “조건-결과” 관계와 “원인-결과” 관계가 드러나는 내용을 찾아본다. 이 기술을 마태복음 6장 14~15절에서 사용해 본다.

열거: 경전에는 가르침 또는 경고와 같은 내용들이 열거되는 경우가 많다. 이런 내용이 나오면 각 요소에 번호를 매겨 목록을 만들어 볼 수 있다. 이 기술을 갈라디아서 5장 22~23절에서 사용해 본다.

대비: 경전에는 대비되는 개념, 사건, 인물이 등장할 때가 많다. 이런 대비를 통해 복음 원리가 강조된다. 한 구절이나 한 장 안에서, 또는 여러 장과 서를 넘나들면서 그렇게 대비를 이루는 내용을 찾아본다. 이 기술을 마태복음 5장 14~16절에서 사용해 본다.

시각화: 경전을 읽을 때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 볼 수 있도록 자세히 묘사된 부분을 찾아본다. 자신이 그 사건이 펼쳐지는 현장에 있다고 상상해 본다. 이렇게 하면 경전에서 읽는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간증을 강화할 수 있다. 이 기술을 마태복음 8장 23~27절에서 사용해 본다.

상징: ~와 같은, ~처럼, 또는 ~에 비유하다 등의 표현은 상징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. 그 상징의 본질을 탐구하고 속성을 숙고하여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파악한다. 각주, 경전 안내서 등과 같은 경전 학습 보조 자료는 여러 상징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이 공부 기술을 마태복음 13장 24~30절에서 사용해 본다.

상호 참조: 어떤 성구가 다른 성구의 문구나 개념을 설명하거나 명확하게 해 주는 경우가 많다. 각주, 색인, 경전 안내서 등을 활용하여 여러 성구를 서로 연결해서 경전 구절의 의미를 풀어 본다. 이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읽은 다음, 제3니파이 15장 21절을 읽고 각주 7을 상호 참조한다. 제3니파이 15장 21절은 요한복음 10장 16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?

숙고: 숙고한다는 것은 사고하고, 명상하고, 질문하며, 아는 것과 배운 것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 숙고하면, 복음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때가 많다. 히브리서 12장 9절에 나오는 진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숙고한다.

적용: 경전에 나오는 교리와 원리를 찾고 이해할 때, 여러분이 찾은 진리들을 실천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.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. “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”(요한복음 7:17) 스스로 경전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을 적용할 기회를 찾는다.